



건강한 치아, 건강한 생활

성인병 · 임신과 치과치료

1. 당뇨병과 치과치료

치과를 방문했을 때 “혹시 당뇨가 있지는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치아나 잇몸이 심하게 아픈데도 당뇨병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과방문을 꺼려하지는 않습니까?

◀10

당뇨병이 있을 때의 구강증상은 입안이 자주 마르고 조이는 감을 느끼며 입맛이 변하고 혀나 뺨 주위의 감각이 이상해지며 잇몸주위에 고름이 자주 생기면서 심하게 아플 수 있다. 또 입안이 자주 헐고 한번 생긴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원래 있던 풍치가 심해져서 치아가 더 흔들리게 되고 식사시 불편감을 겪는다.

이때 적절한 치과치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일단 환자가 당뇨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뇨검사나 혈당검사가 필요하며 당뇨가 있다고 판정되면 더 정밀한 검사나 치료를 위해 내과 방문을 권하기도 한다. 당뇨병을 가진 환자가 치아나 잇몸이 굉장히 아파서 치과를 방문한 경우에는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 후 내과방문을 권하며 발치와 잇몸수술 등은 내과치료를 하면서 병행하기도 한다.

내과적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식이요법, 운동요법, 혈당 강하제의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 등을 각 환자에 알맞게 사용한다. 내과치료 중 주기적으로 혈당검사를 하는데 혈당치를 알아두는 것이 본인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치과치료시에도 참고자료가 된다.

당뇨가 잘 조절되면 보통 정상적인 치과치료를 다 받을 수 있으므로 당뇨병과 구강질환의 관련성

을 잘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건강한 구강상태의 회복 뿐만 아니라 건강한 중년, 노년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고혈압 치과치료

고혈압은 수년간에 걸쳐서 만성경로를 밟아 나타나는 질환이므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자신이 고혈압인줄 알면서도 치료가 잘 안되므로 중간에 치료를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혈압 환자들이 치과에 방문하여 자신이 고혈압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다가 치과 치료가 주는 스트레스나 약제로 인해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혈압은 환자와 치과 의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환이다.

고혈압의 기준은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확장기혈압 90mmHg이상인 경우로 한다. 세계건강보건의기구에서는 수축기혈압 140mmHg 확장기혈압 90mmHg까지를 정상혈압, 141/91~159/94mmHg인 경우를 경계고혈압, 그 이상을 고혈압이라 정의하였다.

고혈압환자가 치과치료를 받고 있으면,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치과의사에게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 고혈압환자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거나 평소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일단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만약 혈압이 140/90이하이고 특별한 복용약이 없다면 일반적인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재 내과치료를 받고 있거나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사람, 또는 140/90이상의 혈압인 사람은 치과치료를



당뇨가 잘 조절되면
 보통 정상적인 치과치료를
 다 받을 수 있으므로
 당뇨병과 구강질환의 관련성을 잘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치과를 방문하도록 한다.

받기 전에 내과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치과치료를 받을 때에도 불안이나 긴장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가끔적이면 오전에 진료약속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3. 임신과 치과치료

임신중에는 여러가지 신체변화가 나타난다. 입안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호소는 임신 이후에 잇몸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또는 뱃속의 아기가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잇몸이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임신중 잇몸에 염증이나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임신 중에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젠)이 증가하여 잇몸의 혈관벽이 얇아진다. 여기에 입안의 환경이 불량하여 치석이나 치태가 잇몸에 끼면 쉽게 염증이 생긴다.

즉, 얇아진 혈관을 치석이나 치태가 자극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이 반드시 잇몸의 염증이나 충치를 일으킨다고 보지는 않는다. 잇몸 염증의 근본 원인은 임신이 아니고 양치를 제대로 못했을 때 생기는 치석이나 치태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임신중의 여성은 몸의 거동이 쉽지 않고 피로해지기 쉬우며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는 시기가 생각된다. 또 한가지 좋지 않은 조건은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입덧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칫솔질을 소홀히 하면 임신중에 잇몸질환이 증가한다.

임신중에 잇몸질환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충치이다. 이것도 근본원인은 잇몸질환이 생기는 이유와 같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입안이 약간 산성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산성의 구강상태는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역시 입안이 불결하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는 것이다.

다음은 태내의 아기에 관하여 알아 보겠다. 태내 아기의 치아는 이미 5주~7주 사이면 벌써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3개월이 되면 엄마가 섭취하는 영양분으로 치아가 단단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임신 초기부터 우유류, 육류, 생선류, 과일과 채소류, 곡류와 빵 등을 포함하는 균형있는 식사를 하여 치아와 골조직의 형성에 필요한 칼슘, 인,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임신중의 치과치료는 국소마취제 등 약제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가 문제가 되므로 이것만 유의하면 치료받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포가 심한 사람의 경우 임신초기보다는 말기가 더 안전하다. 잇몸관리 등은 임신 중 더욱 신경써서 치료받아야 하며 충치나 신경치료 등도 주의해서 시술하면 별 문제가 없다. 임신 중에 일부의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아기의 치아를 어두운 회색이나 노란색으로 착색시킬 수 있으므로 약물복용 또한 장기 사용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72